

이젠 '케이팝 글로벌 오디션'이 뜬다

CJ ENM, HBO맥스와 남미 겨냥 케이팝 아이돌 오디션 기획·개발 SM, 美 MGM과 케이팝 오디션 '하이브'도 미국서 새 그룹 발굴

케이팝 글로벌 오디션이 뜬다.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중심으로 한 케이팝 스타들의 활약상이 전 세계 팬덤을 들썩이게 하는 등 케이팝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내 기획사와 방송사가 해외 오디션 경쟁에 나섰다. 해외시장을 정조준하는 현지화 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며 방송무대를 통해서도 이를 확장하려는 의지로 앞선다. 힙합과 포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재 삼아 오디션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해온 CJ ENM은 남미로 향한다. 미국 워너미디어의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HBO맥스와 손잡고 남미 시장을 타깃으로 케이팝 아이돌 그룹을 발굴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한다. CJ ENM은 최근 "이번 협업을 통해 엠넷의 축적된 오디션프로그램 제작 역량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오디션에서는 글로벌 케이팝 스타와 남미의 스타가 함께 심사를 맡고, 우수한 그룹은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게 된다. 남미지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곳



으로, CJ ENM은 이를 기반으로 향후 케이팝을 통한 글로벌 시장 확장을 노리고 있다.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들도 해외 방송사나 음반사 등과 합작해 오디션을 진행한다.

그룹 엑소와 NCT 등을 만든 SM엔터테인먼트(SM)는 미국 방송제작사인 MGM월드와이드TV와 손잡는다. 이를 통해 미국 할리우드에서 아이돌 그룹 NCT의 새로운 멤버를 발굴하는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MGM월드와이드TV는 '더 보이스' '서바이버' 등 유명 프로그램을 만들어온 제작사이다.

SM은 이번 오디션을 통해 발굴하는 멤버를 글로벌 유닛그룹인 NCT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SM이 자유로운 멤버 영입과 유닛의 영역 확장을 내걸고 선보인 NCT는 한국의 NCT127과 중국 기반의 WayV(웨이션브이) 등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SM은 이번 오디션을 통해서 'NCT 할리우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도 이미 세계 최대 음반사인 유니버설 뮤직그룹과 합작 레이블을 통해 글로벌 케이팝 아이돌 그룹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양측은 미국 LA를 거점으로 삼는 합작 레이블을 설립해 2022년 방송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케이팝 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기자 이보영(왼쪽)과 김서형이 8일부터 선보인 tvN '마인'을 통해 여성 캐릭터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사진제공 | tvN

이보영·김서형 주말 여풍 잇는다

투톱 주연 tvN '마인' 첫방 시청률 6% KBS2 '오케이 광자매' 못지않은 반응

연기자 이보영과 김서형이 주말 안방극장의 '여풍(女風)을 이어간다. 8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tvN 토일드라마 '마인'을 통해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하며 시청자의 호기심을 이끄는 데 성공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마인'은 국내 최고 재벌가에서 일어난 의문의 살인사건을 다룬다. 이보영과 김서형은 각각 회장 정동환의 둘째와 첫째 며느리로 가족 사이에 벌어지는 권력 싸움에 시달리는 상류층 여성을 연기하고 있다. 가정교사 육자연부터 시어머니 박원숙까지 선악을 구분하기 힘든 캐릭터 사이에서도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건이 연루되는 과정으로 긴장감을 차분하게 쌓으며 첫 회분이 6.6%(닐슨코리아)의 낮은 시청률을 얻게 한 주역으로 꼽힌다.

이에 힘입어 드라마가 스타들과 가족사를 엮은 이야기로 인기를 높여온 SBS '펜트하우스' 시리즈, KBS 2TV '오케이 광자매' 등에 못지않다는 반응도 얻고 있다. 두 사람은 여성 주인공들이 처지와 복수 등 다양한 소재를 아우르며 이끌어온 '여풍' 트렌드에 새롭게 합류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보영과 김서형은 "불거리가 많은 드라마가 '대중적'이란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작품의 흥행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연출자 이나정 PD도 "욕망이 강하고 솔직한 여성 캐릭터들을 통해 '여성스럽다'는 단어의 의미를 바꿀 것"이라며 각오를 드러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안도영·유진희 기자

'항공점퍼+청바지' 윤여정 공항패션 화제

'세비지 그랜마' 이미지처럼 8일 캐주얼 차림으로 귀국



'세비지 그랜마' 윤여정이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에게 손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한국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윤여정이 8일 '금의환향'한 가운데 패션스타일도 새롭게 화제를 떠올렸다. 캐주얼한 차림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며 '세비지 그랜마!(Savage Grandma·거침없이 솔직한 할머니)'라는 별칭을 새삼 각인시켰다.

윤여정은 8일 오전 카키색 항공점퍼에 청바지 차림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여정은 지난달 26일 제93회 미

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받은 직후 마마르 할림 브랜드의 드레스 위에 점퍼를 걸치고 수상의 기쁨을 만끽해 화제를 모았다.

윤여정은 이날 장시간 비행에 다소 피곤한 모습으로 입국장에 들어서기 전 휠체어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74세의 고령에 긴 비행시간으로 인한 피로감 탓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여정은 입국 직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한 뒤 공항을 빠져나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취재진 인터뷰 등 별

도의 접촉 없이 자택으로 향했다. 소속사 측은 "감염병 확산으로 최대한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윤여정의 뜻에 따라 조용히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윤여정은 시차 등에 따른 컨디션을 조절한 뒤 온라인 기자회견 등 향후 일정을 모색 중이다.

윤여정은 소속사를 통해 "여우조연상 수상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고, 여전히 설레고 떨린다"면서 "같이 기뻐해 주고 응원해준 많은 분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소감을 남겼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암 보험, 걱정없이 산다



수술한 적 있는 나도
칠순이 넘은 나도
(40-75세 가입가능)

당뇨를 달고 사는 나도
암 걸린 적 있는 나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 (갱신형)

-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가능
- 나이가 많아도 (40-75세)
- 지병이 있어도
- 수술 병력이 있어도
-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보험금도 든든하게
일시금
정액지급

암보험 가입 힘들었던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080-608-1010



스텝가마솥 1개
상담 완료 시
무료 증정!



[이벤트기간: 2021.01.01 ~ 2021.12.31]
* 필수 후 7일 이내 최소 20만 이상 납입 시 이벤트 대상
* 배상금 상한액 후 6주 소액 20만 이하
* 일시금은 지급 누락 면제 초과 지급 제한
* 본 상품은 소비자 기증 30만원 이하로 한정
* 조기 종결 시 다른 경로로 대금 발송됨
* 가입 후 1일부부터 보장은, 소액임은 가입 첫날부터 보장(최초 1회보장(가입 2년 이내 전담 시 50% 보장) *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 까지 보장(갱신 시 보혐료 인상될 수 있음) 만기환급금이 없는 손수보장형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혐회피, 보험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저축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상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00%)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혐하지 않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혐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으로,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가입 가능함
* 일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전담 상담원에게 문의해주시고
*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람.
AA생명보험 주식회사

생명보험 협회 심의필제 2020-02556호 (2020.09.01) (COM-2020-08-32243)